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24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개최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한 해 동안 한국 방송기술의 발전에 공헌한 연합회
원들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송
기술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5일 목요일 18시 30
분에 글래드 호텔 여의도 LL층 BLOOM홀에서 열
렸다.**

방송기술인들의 제작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인이 즐기는 K-콘텐츠가 제작되고, 방송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방송기술대상이 가지는 위상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그리고 파나소닉코리아에서 시상식을 위해 후원으로 도움을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부상으로 박람회 특전과 파나소닉 협찬품이 전달되었다.

2024년 방송기술대상에는 총 12개 방송사에서 21건의 추천서가 접수되었고, 1차 운영위원심사와 2차 정책협의회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되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와 한국전파진흥협회 RAPA의 후원으로 방송기술혁신상과 방송미디어융합상을 새롭게 제정하여 추가 선정하였다.

방송기술혁신상은 방송기술 혁신과 미래 지향적 발전을 이끄는 공로를 인정하는 상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술 혁신과 발전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여 제정되었고, 방송미디어융합상은 전파와 방송 미디어 산업의 융합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방송 환경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하는 상으로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역할과 방송미디어의 미래 비전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제정되었다. 전체 수상자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4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일시 | 2024년 12월 5일(목) 18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9 동원호텔 대홀 후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24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상명	수상자	부상
대상	KBS 변승환, 최규문	NAB 2025 참관 특전 / 상장
최우수상	EBS 김준환, KBS 송신운영팀, MBC 이승호	CCBN 2025 참관 특전 / 상장
우수상	MBC 돌비비전 프로젝트팀, YTN 박상주, KBS 유남경·최동은, KBS 임영재, CBS 정은영	상장 및 상금
장려상	MBN 김승한, TBC 김향석, 아리랑국제방송 홍기훈	
특별상	SBS 김지혜	
방송기술혁신상	CBS 김동화·이정우, SBS 배준경	
방송미디어융합상	MBC 유현우	
공로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2024 방송기술대상 수상자 / 모든 수상자에게는 파나소닉의 협찬 상품이 제공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준비된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연합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의 주요 인사로는 안형준 MBC 사장, 이희석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박창홍 EBS 융합기술본부장, 최영학 CBS 기술국장, 류근민 YTN 기술본부장, 홍종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 양용열 한국전파진흥협회 사무총장, 김민중 KBS 미디어텍 사장, 염정동 KBS 미디어인프라국장, 이춘수 KBS 네트워크 국장, 정영구 MBC 제작기술국장, 김인한 MBC 기술인프라국장, 윤현철 EBS 정보보호 단장, 오민철 YTN 제작기술 국장,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안영민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팀장, 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제24대 이후삼 회장, 제27대 변철호 회장, 제28대 이종하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인사말 중인 김승준 연합회장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김승준 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한 해 동안 온 힘을 다한 방송기술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하게 되신 수상자분들에게 특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며,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방송미디어 산업계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도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방송기술인이 자랑스럽다.”라고 전하며, 주요 수상 내역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술인만의 다양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길 바라며,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에게 축하드린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축사 중인 안형준 MBC 사장

이어진 축사에서 안형준 MBC 사장은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 문화 발전에 한 획을 빛낸 방송기술인들에게 수여되는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 콘텐츠는 방송기술 바탕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 환경에서 국내 방송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방송기술인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올 한해 우리 방송계는 급격하게 식어버린 광고 시장과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콘텐츠 제작비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다.”라며, 방송사의 현실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콘텐츠 혁신은 국내 방송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라며, 행사에 참석한 방송기술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2024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공로패를 받은 홍종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 공로패를 받은 양용열 한국전파진흥협회 사무총장



조종희 EBS 기술인협회장과 장려상 수상자들



조충남 MBC 방송기술인협회장과 최우수상 수상자들



안형준 MBC 사장과 특별상의 김지혜 수상자



장진영 SBS 방송기술인협회장과 우수상 수상자들



홍종배 본부장과 방송기술혁신상 수상자들



양용열 사무총장과 방송미디어융합상의 유현우 수상자

20년간 송출부 시스템 근무



2024 방송기술대상 수상 소감

장려상 ◇ MBN 김승환

- 🏆 디지털화된 방송 자료를 손쉽게 검색·보관·배포·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 방송 제작 환경의 효율성 증대와 방송 품질 향상에 공헌



수상 소감에 앞서 벌써 2024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원 모두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한 해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뜻깊은 한해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올 한해 마지막에 이 같은 큰 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사한 지 올해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하고, 또 그 결과를 통해 이렇게 큰 상으로 보답받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은 프로젝트들은 여럿 했지만, 이번 프로젝트처럼 큰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하게 되어서 부담감 반 잘하고 싶다는 다짐 반이었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서는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었기에 이 수상에 영광을 선배님들에게 돌립니다. 또한 모두 다 같이 노력했지만 제가 수상을 하게 되는 것에 선배님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분에게 축하드리고,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님들, 이 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려상 ◇ TBC 김항석

- 🏆 저지연 온에어 스트리밍 서비스 구현, 안정적인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
- 🏆 방송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방송 문화창달과 방송기술 향상에 기여



2024 방송기술대상에서 장려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이면 제가 방송기술직에 입사한 지 30년이 됩니다. 그동안 선배님들께 배운 소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가족과 회사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더욱 큰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과제에 부딪힐 때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와준 회사 동료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 모두의 노력과 성과가 더 널리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전과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가며, 새로운 방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지역방송이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려상 ◇ 아리랑국제방송 홍기훈

- 🏆 VR 스튜디오 구축, 뉴스 제작에 활용함으로써 시각적 주목성과 전달력 향상
- 🏆 뉴스 보도의 명료한 전달력 및 다양성을 향상시켜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



24년의 끝을 알리는 12월. 그 끝과 한 해 모두가 노력하여 일궈낸 성과를 알리고 축하해 주는 자리인 방송기술대상의

장려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장려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기술인협회에 감사드리고, 모든 수상인 분들께 축하 인사 전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뉴스 부조, 기술연구소, 조명 등 선배님과 고민하고, 테스트하며 구축한 시스템으로 첫 VR 영상이 송출된 날이 기억나네요. ‘방송과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인사 남깁니다.

하루가 다르게 방송기술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양한 각도의 시선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더 발전하는 엔지니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상 ◇ MBC 돌비비전 프로젝트팀



🏆 지상파 방송사 최초로 돌비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HDR 드라마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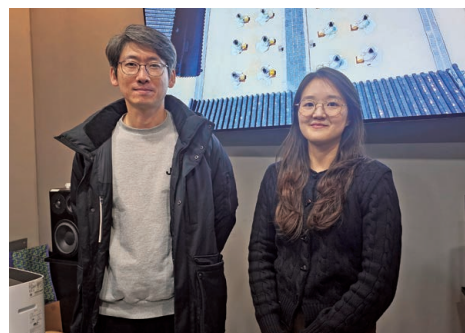
🏆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으로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

안녕하세요, MBC 종합편집팀 D파트 돌비비전 프로젝트를 맡은 기정모입니다. 먼저 2024년 MBC 드라마 <우리, 집>의 돌비비전 제작 및 OTT 송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마스터링 및 배포에 힘써주신 이종하, 김대원, 임진혁 님 및 Wavve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MBC의 돌비비전 제작은 방송기술교육원의 돌비비전 제작 해외 교육을 수료하신 김은영, 석정은 님의 전달 교육을 이수 받아 수행한 것으로써, 방송기술교육원의 해당 교육과정 진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의미 있게 교육의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더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해외 교육을 다녀오신 두 협회원은 다른 업무 일정으로 직접 돌비비전 제작에 참여하진 못하셨지만 320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손수 만드시고, 적극적으로 제작을 지도해 주셔서 지상파 최초로 돌비비전 제작을 수행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등 OTT 산업의 약진에 따라 후반제작 기술도 외부 제작 업체와 기술력 경쟁이 가속화되는 이때, 지상파 방송사 제작기술의 자존심을 살리는 데 일조한 것 같아 또한 기쁘고 감사합니다. 호평에 의지하여 2025년 8월에도 드라마 <이 강에는 달이 흐른다> 전편을 돌비비전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 MBC와 더불어 더욱 많은 회사에서도 돌비비전을 비롯한 HDR 제작이 활성화되어 시청자에게 더 좋은 영상을 선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수상 ◇ 유남경·최동은



🏆 대하드라마의 테크니컬 슈퍼바이저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수행

🏆 전체 워크플로우 설계 및 관리, VFX 기획·제작하여 방송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

안녕하세요. KBS 후반제작부의 유남경, 최동은입니다. 저희는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테크니컬 슈퍼바이저로 참여하며, 기획 단계부터 후반제작에 이르기까지 방송 제작 전반에 걸친 기술적 방향성을 이끌었습니다. UHD 제작을 위한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관리하며, VFX를 기획·제작하여 방송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드라마 제목에 전쟁이 들어가는 만큼 큰 전쟁씬이 많고 VFX가 중요했습니다. 귀주대첩, 홍화진 전투, 삼수채 전투 등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생동감 있는 화면을 전달하기 위해 전쟁 장면의 디테일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효율적인 시간과 비용 관리를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긴 대하드라마인 만큼 춥고 더운 모든 계절을 촬영 현장에서 함께 고생하고, 또 문제가 생겨 밤을 새우며 후반작업을 하던 시간이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함께한 수많은 동료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드라마 제작에 힘써주신 모든 제작진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방송기술의 발전과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나을 KBS의 새 대하드라마에도 깊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수상 ◇ 박상주

🏆 CNN 외신 수신시스템 구축하여 라이브 방송 및 실시간 인제스트 기능 구현

🏆 보도정보 및 영상관리시스템과 연동 기능을 개선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고품질화에 기여



YTN 기술본부 인프라국 IT시스템팀의 박상주입니다. 먼저 2024 방송기술대상 우수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CNN 외신 수신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 시청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글로벌 뉴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라이브 방송과 실시간 인제스트 기능을 구현하고, 보도 정보 및 영상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뉴스 제작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술본부의 많은 선배, 후배님들의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보도정보시스템과 영상관리시스템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IT시스템팀이 이루어낸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글로벌 뉴스를 향한 저희의 열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수상 ◇ KBS 임영재

🏆 사운드 슈퍼바이저로서 이머시브 사운드 기술을 도입해 돌비 애트모스 입체음향실 구축

🏆 음향감독 역할의 방향과 범위를 정립하고 제작 환경 효율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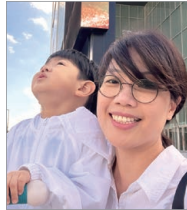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KBS 임영재입니다. 2024년 방송기술대상 우수상이라는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요즘 입체음향 콘텐츠가 늘어나는데 지상파 방송사는 많이 뒤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KBS는 이번에 구축한 입체음향실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음향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사의 음향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라운드의 한계로 입체음향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데 이미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의 한계는 극복되었고, 이제는 입체음향을 좋은 사운드를 만드는 하나의 좋은 도구로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포함해서) 좋은 사운드는 많이 경험할수록 그것을 좋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좋은 사운드라고 느낄 때 삶의 질이 올라가고 행복감이 커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런 경험이 시청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입체음향 등을 통해 좋은 사운드의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할 것이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우수상 ◇ CBS 정은영

- 🏆 청취자의 반응부터 날씨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는 라디오방송의 선곡 기술 구현
- 🏆 제작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 실용성을 극대화하여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



안녕하세요. CBS 기술국 정은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CBS 방송기술인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저희 제작진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선곡 지원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선곡 지원, 날씨와 청취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으로 제작진의 니즈를 만족시킨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발전하고 노력하는 방송기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신 CBS 기술국 선후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상 ◇ SBS 김지혜

- 🏆 정보보안 업무 담당으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보안 투자 및 운영을 통해 사고를 예방
- 🏆 보안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하고 조치하여 안정적인 방송 제작 환경 조성



2024년 방송기술대상 특별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멘토님과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보보안 분야는 담당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함께 힘 써주시는 팀원들과 모든 회사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보보안 관련 법과 규제로 인해 방송 제작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사용자 편의성에 일부 제약이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방송사 내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방송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기술과 함께 발전하는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방송기술혁신상 ◇ CBS 김동화·이정우



🏆 국내 방송사 최초로 라디오 앱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능 도입

🏆 모바일 플랫폼의 혁신적인 확장을 주도하여 우수한 성과로 방송기술 혁신에 공헌

방송기술혁신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지난 프로젝트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CBS 레인보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동료들과 서비스를 사랑해주신 사용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Android Auto와 Apple CarPlay 기능을 CBS 레인보우에 통합하는 과정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Dart 언어와 Flutter SDK로 작성된 기존 코드와 다른 Native 언어와 SDK를 사용해야 했기에 호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술적 난관이 있었지만, 거듭된 연구와 디버깅, 피드백 반영을 통해 극복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기술적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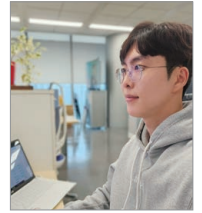
서비스 런칭 후 평균 청취 시간이 증가하고 출퇴근 시간대 동시 접속자가 크게 늘었다는 성과를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차량 내 사용자 경험을 한층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저희 부서원들의 헌신과 협력 덕분입니다.

또한, 비전을 지지하며 필요한 리소스를 지원해주신 부장님과 국장님, 또 CBS 기술국의 모든 엔지니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수상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며 CBS 레인보우를 사랑받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송기술혁신상 ◇ SBS 배준경

🏆 OTT 표준 4K 마스터링룸 구축에
서 실감 오디오시스템과 넌리니어
편집방식 도입

🏆 방송사 최초로 7.1.4 돌비 애트모스
스튜디오 규격으로 차세대 방송 제
작성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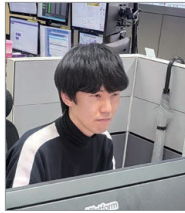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SBS TV기술팀의 배준경입니다. 먼저, 올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의 지원으로 신설된 방송기술혁신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 방송기술계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저한테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노후화된 종합편집실을 단순히 교체하는 것이 아닌 OTT 표준 4K 마스터링룸으로 리뉴얼 구축하였습니다. OTT 표준 4K 마스터링룸은 방송사 최초로 7.1.4 Dolby Atmos Studio의 규격을 정확히 충족하는 실감 오디오 시스템과 Non-Linear 편집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포맷의 콘텐츠 제작은 물론, 현존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재가공/납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플랫폼과 콘텐츠가 난무하는 가운데, 단순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었고, 해당 시설이 차세대 종합편집실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좋은 레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받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구축 과정에서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고 그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방송기술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융합상 ◇ MBC 유현우

- 🏆 이미지 분석 AI 모델을 활용하여 아카이브 AI 검색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설계 및 개발
- 🏆 기존 아카이브 영상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방송기술 분야에 AI 기술 도입



먼저, 올해 새로 신설된 방송미디어융합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방송기술인연합회, RAPA, MBC 방송기술인협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AI 기술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여 어느새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대중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송, 미디어 환경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MBC는 이러한 AI 기술을 방송 제작 환경 전반에 활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AI 기술을 아카이브 콘텐츠 검색에 활용하여 기존의 사람이 입력한 메타데이터만으로는 찾기 어려웠던 자료를 유사 이미지나 상황을 묘사하는 텍스트 형식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방송 대사를 AI STT를 활용해 검색 데이터를 생성하여 찾고자 하는 대사를 포함한 장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도 개발이었지만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 검색엔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팀 내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이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내 홍보도 팀원분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주신 결과 사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특히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매시업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주신 미디어IT센터장님, IT솔루션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아카이브유통파트 선후배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최우수상 ◇ EBS 김준환

- 🏆 AI 단추 서비스 담당으로 EBS 교재의 문항 정보를 디지털라이징하여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
- 🏆 진단·추천 알고리즘에 딥러닝을 적용한 지식추적모델 알고리즘으로 차세대 방송기술 선도



안녕하세요, EBS 김준환입니다. 먼저 저에게 최우수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수여해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AI 단추 서비스는 그간 축적되어있는 EBS의 교재 문항을 디지털라이징 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학생들이 과목별 수준에 맞는 문항을 진단·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2024년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2024. 1. 24 발표)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에 대한 일환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목표는 기존 AI 단추 서비스의 룰베이스 기반의 군집단위 서비스로 구성된 알고리즘을 딥러닝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고도화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 효능감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의 사교육 경감 정책에 공조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로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분명 뜻깊고 가슴 뛰는 일이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는 참고할만한 레퍼런스가 없어 깊은 막연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제 곁에서 도움을 주는 AI 팀원분들과 제 마음의 큰 지지대가 돼주시는 김동신 부장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기술인들은 방송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하여, 방송과 교육 분야에 대한 융합형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힘든 성장의 순간에 묵묵히 저를 믿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분들과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창홍 기술본부장님, 그리고 기술인협회 선·후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우수상 ◇ KBS 송신운영팀



- 🏆 방송 송신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
- 🏆 DMB 송신기 동작 불량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방송 인프라 정상화 및 개선에 공헌

2024년 방송기술대상 최우수상의 영광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BS 송신운영팀은 전국의 송·중계소의 운영, 유지 및 관리 등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준 팀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수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최상의 팀워크와 도움을 주신 덕분에 1년 동안 사업을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송·중계소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담당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S 송신운영팀에서는 앞으로도 더 나은 방송기술과 서비스로 신뢰받는 KBS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수상 ◇ MBC 이승호

- 🏆 하이브리드 RTK 기술 개발과 사업 총괄하여 약 150만 달러의 수출 실적 달성
- 🏆 IEEE BMSB 2024에서 기조연설로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 국내외 방송기술 혁신에 공헌



안녕하세요. MBC 기술정보사업파트에서 파트장을 맡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이번 방송기술대상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융합형 cm급 정밀측위 기술인 MBC의 하이브리드 RTK 서비스로 본 팀에서 방송기술대상 및 최우수상을 이미 받았으나 해마다 각각 중요한 의미와 성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LTE 통신 위주로 국내 시장에 국한되었던 MBC RTK 기술 사업을 방송통신 융합형으로 확장하고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의 합작회사에 서비스 플랫폼을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방송시스템의 대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중심에는 ATSC 3.0 표준이 있습니다. 국내,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지역과 브라질, 인도에서 ATSC 3.0을 활용한 차세대 방송서비스로 전환되거나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방송서비스 전환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방송서비스 외에 새로운 부가 사업 모델과 신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MBC의 Hybrid RTK 기술과 사업이 미국 외 국가에 소개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년 후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뤄 본 팀에서 또 한 번 수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 상 ◇ KBS 변승환·최문규》



 북한 방송 수신 불가 사태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위성 직접 수신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구축

 방송 프로그램 및 뉴스 보도에 필요한 북한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방송기술 발전에 기여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2024 방송기술대상에 선정해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단에 감사드리며, 지난 무더운 여름 북한 조선중앙TV 위성 수신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미디어 송출시스템 및 보도기술국 시스템 담당자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남산송신소 보수팀, 이외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수상의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해 저희뿐 아니라 방송기술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템
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성방송수신이 선정되어 다
시금 감사드립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월 말일부로 중국 위성에서 7월 러시아 위성으로 변경하면서 정부 기관 및 방송사들이 수신 하던 북한 조선중앙TV 수신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의 경우 보도자료 외 <남북의 창> 프로그램은 조선중

양TV를 주요 영상자료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선중앙 TV 영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위성 담당자로 수신 관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China Sat 12에서 수신할 때보다 러시아 Express 103 위성 수신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 5G 주파수 대역과 겹쳐 정상적인 수신이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뿐 아니라 서비스 구역이 제한된 일본, 중국 등 비슷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러시아 Express 103 위성을 수신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의도를 비롯하여 여러 포인트를 돌아다니
다, 최종 최측 수신 점인 경기 감사관 KBS 중계소 옥상에서
러시아 Express 103 위성에서 송출하는 북한 조선중앙TV
화면이 수신될 때 많은 그간 수고의 결과를 볼 수 있어 기뻐
습니다.

큰 위성안테나로 이동하며 수신 점을 잡기 위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함께 협조와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으나 KBS 방송기술의 다양한 조직이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상은 저희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닌 어려운 시기 KBS 방송기술의 저력과 부서 간의 협업 성과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함께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장려상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우수상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방송기술혁신상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최우수상 KBS 송수영팀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